

【논 문】

일제시기 압록강 하구 가이호즈(Gaihōzu, 外邦圖)에
나타나는 일본의 조·청 국경 인식*

문 상 명**

차례

- I. 머리말
- II. 가이호즈의 소장 현황 및 데이터 베이스
- III. 지역에 따라 다양한 축척을 활용한 가이호즈
- IV. 가이호즈에 나타나는 압록강 하구
- V. 맺음말

국문초록

일본은 1870년경부터 다른 나라에 첩보원을 보내어 비밀지도를 제작했으며, 이 지도는 외방도·가이호즈(Gaihōzu)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가이호즈에는 세계를 바라보는 당시 일본의 관점과 세계를 향한 일본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면을 밝히고자 한다.

가이호즈는 지역마다 다른 축척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는데, 이것은 가이호즈가 특정한 목적에 따라 제작된 지도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특히 압록강 하구지역인 의주·용암포·안동·대동구 등지는 러시아와 일본뿐만 아니라 열강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지역으로, 이 지역을 그린 1:50,000 축척의 가이호즈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자료이다. 지도를 통해 당시 하천 국경을 면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용암포 지역의 수리조합과 토지개량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농지, 안동의 일본영사관과 미국영사관, 압록강 철교와 철도 등은 당시 일본을 비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NAHF-2018-기획연구-12).

**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롯한 열강들에게 매력적이었던 압록강 하구 지역의 경관을 잘 보여 준다. 방대한 공간을 그린 가이호즈에는 당시의 경관이 잘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자료이다. 특히 분단의 상황으로 북한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우리에게 가이호즈가 보여주는 북한지역은 더욱 그러하다. 가이호즈를 소장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기관들은 가이호즈에 대한 정리와 연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비록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가이호즈는 미비하지만, 우리나라를 그린 가이호즈는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지에 넓게 퍼져 있다. 우선하여 이 지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DB를 소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주제어 : 가이호즈, 외방도, 일본의 조-청 국경인식, 압록강 하구지역, 신의주, 안동

I. 머리말

가이호즈(Gaihōzu, 外邦圖)는 일본이 1870년경부터 다른 나라에 첩보원을 보내어 제작한 비밀지도이다. 지역적 범주로는 동서로 알래스카에서 마다가스카르까지, 남북으로는 동시베리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르고 식민지 대만과 관동주(關東州), 조선을 비롯한 중국과 만주,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도 포괄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일본 육군참모본부, 일본 육지측량부, 일본 해군수로부(海軍水路部) 등이 전쟁을 위해서 혹은 식민지 지배를 위해 제작한 지적도이자 지형도, 해도, 항공도 등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지도는 일본뿐만 아니라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들 근현대 지도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한편 지도를 제작한 국가와 지도의 대상이 된 나라, 현재 지도를 소장하고 있는 곳이 다르고 또는 여럿이라 이것을 부르는 명칭 또한 다양하다. 지도를 제작한 일본에서는 ‘外邦圖’¹⁾, ‘Japanese overseas maps’, ‘Maps of the

1) ‘外邦圖’는 일본 내의 지도를 ‘內邦圖’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다.

Areas outside the Japanese Territory Prepared by Former Japanese Army’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지도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국기 군사기밀지도’, ‘한국 근대지형도’, 또는 ‘외방도(外邦圖)’라고 부른다. 현재 이 지도의 상당 부분을 소장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외방도의 일본어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Gaihōzu’라고 하거나 ‘Japanese imperial maps’라고 부른다. 이 지도에 대한 다양한 명칭에는 지도를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이 투영되어 있다. 일본은 한국과 미국에서 부르는 ‘일본 제국기 지도’라는 명칭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의 학자 가운데는 한국의 주체적 입장에서 ‘한국의 근대지도’²⁾라는 표현을 선호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고유명사로서 ‘가이호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46년, 미국의 AMS(Army Map Service)는 미국 및 캐나다의 공공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 150여 곳에 가이호즈를 기부하였다(Ehrenberg 1981; Harris 1997). 그 가운데 두 대학에서만 가이호즈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1년 8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Branner Earth Science 도서관에서는 가이호즈 전문가인 고바야시 시게루³⁾ 교수를 초청하여 《Japanese Imperial Maps as Sources for East Asian History: A Symposium on the History and Future of The Gaihōzu》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현재 유일하게 이 대학만이 이 지도를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온라인상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뒤 2016년 3월, 워싱턴대학의 Suzzallo Library에서 《Gaihōzu Show and Tell》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⁶⁾ 한국에서는 성신여대의 문상명이 2017년 ‘가이호즈(Gaihōzu)’라는 명칭으로는 처음으로

2) 이 용어에 대하여 남영우(1992)는 ‘한국 근대지도’, 박선영(2018)은 외방도 중 조선반도와 관련된 지형도를 ‘한국 근대지형도’라 명명했다. 한편 양보경·양윤정(2009)은 미국의회도서관에 소장된 초기본 외방도에 대하여 ‘비밀지도’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3) Shigeru Kobayashi(小林茂), 大阪大學 大學院文學研究科 教授.

4) 《Japanese Imperial Maps as Sources for East Asian History: A Symposium on the History and Future of The Gaihōzu》, October 8, 2011, Stanford University.

5) 2016 Fall, East Asia Library Newsletter, University of Library .

6) 문상명, 2017, 『Gaihōzu에 나타나는 독도』, 『서지학연구』 72, 307쪽.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미국에 소장된 가이호즈의 현황을 밝히고 스탠포드대학에 소장된 독도지도를 분석하였다.⁷⁾

2018년 3월, 일본 교토에 위치한 리츠메이칸대학에서는 《日本の古地図ポータルサイト・シンポ (일본 고지도 포털사이트 심포지엄)》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앞서 미국의 두 대학에서 개최한 가이호즈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컨퍼런스를 주도하였던 일본의 고바야시 교수는 “Databases of images of Japanese Imperial Maps (Gaihōzu) in Japan⁸⁾”이라는 주제로 일본과 미국, 한국의 가이호즈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발표하였다. 2018년 9월, 워싱턴대학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가이호즈 현황을 정리하여 목록화⁹⁾하였는데, 우리나라 지도(조선이라는 명칭)는 모두 364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직 지도의 스캔 작업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으로 지도를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지만 고바야시 교수가 3월에 발표한 가이호즈 DB 현황에 워싱턴 대학의 지도가 추가되어 가이호즈에 대한 연구는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

정치학자 Arthur J. Klinghoffer는 ‘지도는 객관적인 기하학적 도식이 아닌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이 투영된 정치적 도구’라고 말하였다.¹⁰⁾ 일체가 비밀리 제작한 가이호즈는 세계를 보는 당시 일본의 관점과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면을 밝히고자 한다.

문상명은 앞선 연구에서 가이호즈를 소장하고 있는 미국의 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일본을 비롯한 미국과 한국에서 진척된 가이호즈 연구 상황과 아카이브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 가이호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했던 이유는 이 지도의 현황 파악이 부족하여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고, 해외 자료가 대부분이라 수집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해 한 해 진척된 자료의 아카이브 현

7) 문상명, 2017, 앞의글: 가이호즈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이 논문을 참고.

8) http://www.arc.ritsumei.ac.jp/GISDAY/2018/pdf/2_8_JE_kobayashi.pdf.

9)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jMSrj42744OsCkOnKAe-_58-StJjEdwTuCx-VFfS14/edit#gid=962162621

10) “Maps are not an objective geometric scheme but a political tool that reflects the intention and point of view of the mapmaker - Politician Arthur J. Klinghoffer”.

황을 파악하는 것은 자료 수집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수집한 가이호즈를 바탕으로 첫째, 일제가 가이호즈를 제작한 목적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일본이 식민지배를 위해 제작했던 한반도 지도 가운데 압록강 하구 지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지역은 청과의 국경을 마주한 곳이며, 특히 다양하고 자세한 축척으로 지도가 제작된 지역이다. 지도를 통해 압록강 하구에 대한 당시 일본의 조-청 국경인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가이호즈의 소장 현황 및 데이터베이스

1. 일본의 현황

가이호즈는 1870년대부터 일본의 비밀 정찰을 통해 제작되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한국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제작되었다. 종전 직후 미국의 AMS는 지도를 취합한 뒤 미국과 캐나다 도서관에 배포하였다. 배포처는 1950년 2월 27일에 작성된 Army Map Service Depository Lis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

고바야시 교수는 일본 및 미국 내 가이호즈의 분포와 DB 현황에 대하여 리츠메이칸대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 참고서지부(國立國會圖書館參考書誌部: 1966 - 1993)에서는 가이호즈를 목록화 하였으며, 고바야시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오사카대학에서는 1976년과 1983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지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일본국립국회도서관²⁾에서 ‘Gaihōzu; 外邦圖’를 주제로 검색하면 가이호즈를 소장하고 있는 일본의 몇몇 대학이 검색된다. 이 가운데 도호쿠대학에서는 2003년, 교토대학에서는 2005년과 2010년,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

1) 문상명, 2017, 앞의글, 310~312쪽.

2) 國立國會圖書館: <https://ndlonline.ndl.go.jp>.



[그림 1] 가이호즈 목록집(고바야시 발표문 참고)

는 2007년, 고마자와대학에서는 2011년에 가이호즈 목록을 책으로 간행하였다.¹³⁾

2002년, 일본에서는 가이호즈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참모본부, 육지측량부, 수로본부 관계자들과 학자들이 모여 심포지엄을 열었다. 2003년 도호쿠대학에서는 가이호즈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기초자료로 목록을 만들었으며, 고바야시 교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KAKENHI(Grant - in - Aid for Publication of Scientific Research Results)의 연구비를 바탕으로 ‘Gaihōzu Map Digital Archive’¹⁴⁾를 만들

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은 도호쿠대학, 교토대학,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오사카대학 등이며 도호쿠대학 도서관의 서버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가 제공되고 있다.

<표 1> 국가별 가이호즈 소장 기관 및 아카이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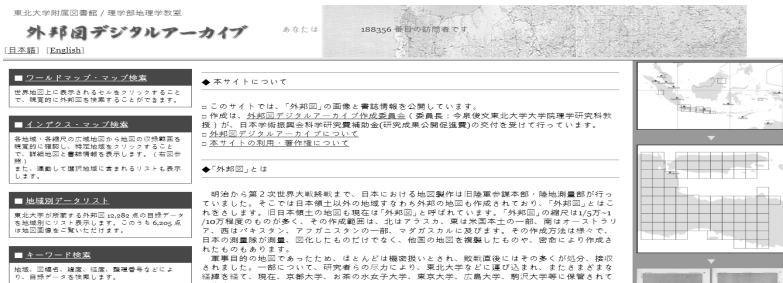
국가	기관	웹사이트
일본	東北大學附屬図書館 / 理學部地理學教室	http://chiri.es.tohoku.ac.jp/~gaihouzu/index.php?lang=ja - JP
	岐阜縣図書館	http://www.library.pref.gifu.jp/map/worlddis/mokuroku/out_japan/out_japan.htm
	國立國會圖書館	http://rnavi.ndl.go.jp/research_guide/entry/post - 296.php
	大阪大學図書館	http://www.let.osaka - u.ac.jp/geography/gaihouzu/earlymap/index.html

13) 駒澤大學所蔵外邦図目録(Gaihouzu catalog maps of the area outside the Japanese territory prepared by former Japanese army in the possession of Komazawa University); 京都大學総合博物館収蔵外邦図目録; 東北大學所蔵外邦図目録; お茶の水女子大學所蔵外邦図目録

14) [http://chiri.es.tohoku.ac.jp/%7Egaihouzu/index.php?lang=ja - JP](http://chiri.es.tohoku.ac.jp/%7Egaihouzu/index.php?lang=ja-JP)

국가	기관	웹사이트
미국	Stanford Univ. Library	https://stanford.maps.arcgis.com
	Hawai'i at MĀNOA Library	https://guides.library.manoa.hawaii.edu/special-collections/japanese-imperial-maps-charts
	Library of Congress	https://www.loc.gov/search/?all=true&fa=subject:maps%7Csubject:korea+%28north%29&q=Gaih%C5%8Dzu
	Washington Univ.	https://guides.lib.uw.edu/research/gaihozu/home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지도자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dir=ASC&start=1&limit=20&page=1&prev_page=1&setId=-1&prevPage=0&prevLimit=&itemId=jnm&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jnm_020&position=-1

가이호즈 디지털 아카이브의 문헌 정보는 ‘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지역, 지도 코드 넘버, 지도 이름, 축척, 크기, 색, 국가, 제작 연도, 제작자, 인쇄 연도, 좌표, 소장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 특히 문헌(지도) 정보의 왼쪽 하단 부분 ‘Collected situation(소장 현황)’에는 도호쿠대학(Tohoku Univ.), 교토대학(Kyoto Univ.), 오차노미즈여자대학(Ochanomizu Univ.), 기후도서관[岐阜図書](Gifu Lib.), 국회도서관(National Lib.)의 원본 지도 및 복제된 지도의 소장 현황이 표시되어 있어 찾고자 하는 지도의 소장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도호쿠대학 도서관 제공 ‘Gaihōzu Map Digital Archive’ 메인 화면


GHAIHOLMe Digital Archive

Bibliographic Information

Region name	インドネシア
Code	シヤアの数字記号
Name	
Scale	1:50,000
Size (H/W)	88cm × 48cm
Color	4色(黒・青・赤・茶)
Japanese signage	凡例のみ
Surveyed country	オランダ
Surveying institution	旧海軍測地局
Surveyed year(include "adjustment")	1924年測量
Printing institution	陸軍測量部 第一課印刷部
Printed year	昭和九年(1934)
Published year	昭和18年発行
Note	経緯は1924年基準

* Display range (Greenwich, etc.)

東 112° 0' 00.00"	東 112° 00' 00.00"
東 112° 0' 00.00"	東 112° 00' 00.00"
東 112° 0' 00.00"	東 112° 00' 00.00"
東 112° 0' 00.00"	東 112° 00' 00.00"



► Detailed image

* Collected situation					
Institutions	Tohoku Univ.	Kyoto Univ.	Ocha Univ.	Gifu Lib.	National Lib.
Real maps	○	○	○	○	—
Copied maps	—	—	—	—	—
Serial number	8493	8670	19592	086860	

[그림 3] 지도의 정보(도호쿠대학 도서관 제공 Gaihōzu Map Digital Archive)

기후현 도서관에는 도호쿠대학 도서관에서 기증받은 조선반도, 중국, 만주지역 지도의 복제본이 소장되어 있다. 일대 만부터 일대 이십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축척의 지도들이다. 그렇지만 색인 지도와 지도의 목록만이 표시되어 있고, 지도의 이미지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다.

2. 기타 국가의 현황

미국의 AMS가 1950년 2월 27일에 작성한 Army Map Service Depository List에 의하면 미국 26개 주 대학 도서관과 기관에 가이호즈가 소장되어 있다¹⁵⁾. 이 가운데 스텐포드 대학의 Branner Earth Science Library에는 8,000여 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되어 있고 일부의 지도는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¹⁶⁾ 미국의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에는 가이호즈 초기본이 다수 소장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화¹⁷⁾되어 있으나 이미지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Hawai'i at MĀNOA Library가 소장하고 있는

15) 문상명, 2017, 앞의글, pp. 311~312.

16) 문상명, 2017, 앞의글, 스텐포드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가이호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있음.

17) <https://www.loc.gov/search/?all=true&fa=subject:maps%7Csubject:korea+%28north%29&q=Gaih%25%8Dzu>.

가이호즈는 10점 정도이고 백만분의 1 항공도가 대부분이다. 이는 완벽하게 데이터베이스로 정리¹⁸⁾되어 있으며 상세한 이미지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반도의 서해와 중국의 청도가 그려진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2018년 9월에는 워싱턴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가이호즈를 정리하여 목록화하였으며, 현재는 지도를 스캔하여 사이트에 게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리된 목록에 의하면, 색인 지도 79점, 중국지도 303점, 대만지도 196점, 조선지도 364점이며 만주 지도가 650점으로 가장 많다.



MAP
Chōsen oyobi Manshū jūmanbun no ichizu Hakutōsan
 朝鮮及滿州十萬分一圖白頭山 / | Chōsen oyobi Manshū jūmanbun no ichizu Hakutōsan |
 Chōsen oyobi Manshū 1:100,000 zu Hakutōsan **Catalog Record Only**
 Relief shown by contours and spot heights. Confidential "Gunji himitsu" printed on upper right margin. Includes index map to adjoining sheets. LC copy incomplete: set of 1 sheet. LC copy stamped on: "Army Map Service Library..." and "Captured map." Gaihōzu. Sheets individually subtitled and numbered: e.g. "會亭"; "2号." -- 2. 會亭. Confidential "軍事秘密" printed on upper right margin.
Contributor: Japan, Rikuchi Sokuryōbu - Japan, Rikugun, Sanbō Honbu
Date: 1938



MAP
Manshū jūmanbun no ichizu Hakutōsan
 滿州十萬分一圖白頭山 / | Manshū jūmanbun no ichi zu Hakutōsan | Manshū 1:100,000 zu Hakutōsan **Catalog Record Only**
 Relief shown by contours and spot heights. Includes index map to adjoining sheets. LC copy incomplete: set of 38 sheets; some no. have copy 2 and 3. LC copy stamped on: "Army Map Service Library." Gaihōzu. Sheets individually subtitled and numbered: e.g. "五家寨子"; "白頭山穴號"; "白頭山6号. 五家寨子 -- 白頭山7号. 柳溝寺 -- 白頭山8号. 東家廟 -- 白頭山9号. 茨川 -- 白頭山10号. 會亭德 -- 白頭山11号. 寧聚碑子 -- 白頭山12号....
Contributor: Japan, Rikuchi Sokuryōbu - Japan, Rikugun, Sanbō Honbu
Date: 1938

[그림 4] 만주 및 백두산 부분 지도 색인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오사카 대학의 고바야시 교수는 서울 종로구청이 소장하고 있고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제공¹⁹⁾하고 있는 한국 근대지도가 가이호즈라고 발표한 바 있다. 1998년에 경인문화사에서 편찬한 『근세한국 오만분 일지형도(영인본 상, 하)』와 같은 유형의 지도이다.

18) https://evols.library.manoa.hawaii.edu/handle/10524/54140/browse?type=dateissued&submit_browse=Date.
 19)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page=1&setLimit=-1&prevPage=0&prevLimit=&itemId=jnm&types=&synonym=off&chineseChar=on&brokerPagingInfo=&levelId=jnm_020&position=-1.



[그림 5] Hawai'i at MĀNOA Library Japanese Imperial Maps

그런데 이 지도의 제작 주체는 조선총독부로 일본 육군참모본부나 육지 측량부에서 제작한 가이호즈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한편 대만 중앙연구원²⁰⁾의 지도를 가이호즈라 소개하였다. 그런데《中研院近史所典藏地圖數位化影像製作專案計劃》의 지도는 중국의 육군참모본부가 제작한 지도이며, 중국 각성과 조선의 일부, 세계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도는 일본이 제작한 가이호즈가 아니라 중국 측에서 제작한 지도이다.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을 그린 두 지도를 비교한다면, 당시 중국과 일본이 처한 국제적 정치 상황을 이해하고 양국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Ⅲ. 지역에 따라 다양한 축척²¹⁾을 활용한 가이호즈

가이호즈는 지역에 따라 다른 축척이, 또는 한 지역에 여러 축척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일본 대부분 지역에는 매우 자세하고 세세하게 지역을 표현하는 1:10,000의 축척이 적용되었고, 일본 외의 지역에 1:10,000의 축척을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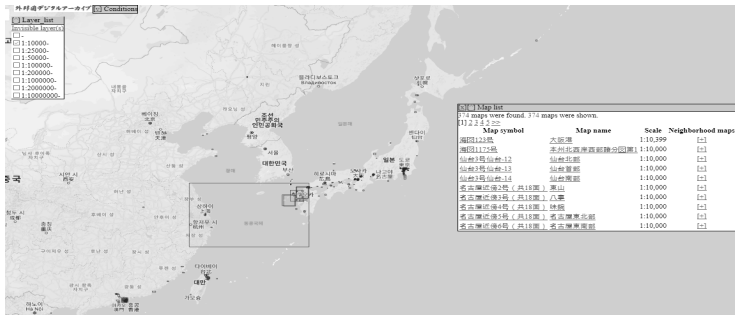
20) http://webgis.sinica.edu.tw/map_imh/.

21) <http://chiri.es.tohoku.ac.jp/~gaihozu/worldmap/index.php?lang=en-US>.

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의 부산과 중국의 장춘·대련·산둥반도의 웨이하이·상하이, 그리고 대만 정도이다.

그다음으로 지역을 자세하게 표현한 축척은 1:25,000 지도이다. 해당 지역은 일본과 한반도, 대만, 중국의 해안지역으로 1:10,000 지도로 표현한 지역과 중첩된다. 1:50,000 지도는 한반도 전역과 대만 일대, 만주의 일부 지역이 해당되는데, 특히 만주지역의 경우 심양과 장춘 북쪽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 다만 중국 쪽으로 두만강과 압록강 너머부터 심양과 장춘을 잇는 남쪽 부분의 지도는 없다. 이는 일본에서 특별히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할 주요한 도시나 시설물 등이 없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1:10,000 지도에 한반도가 빠져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1. 1: 10,000 가이호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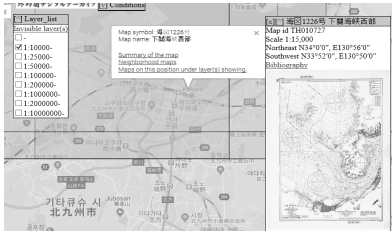


[그림 6] 1: 10,000 축척의 지도로 제작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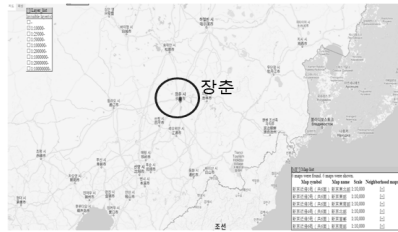
도호쿠대학에서 제공하는 가이호즈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1:10,000 축척의 지도를 찾으면 일본 내부의 기타큐슈, 히로시마, 오사카, 도쿄, 요코하마 등 주요 도시들이 검색된다(그림 6).²²⁾ 히로시마는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투하된 도시이다. 당시 일본군 제2사령부의 주둔지이며 통신센터이자 병참기지로서 군사상 중요한 지역이었다. 기타큐슈의 고쿠리는 두 번째 원폭 지

22) <http://www.world-war-2.info/atomic-bomb/>.

점이었지만, 폭격 당일 그 지역이 구름에 가려 시야 확보가 어렵고 연료마저 부족하여 오키나와로 가는 길목에 있는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다.²³⁾ 이처럼 일본 내에서 군사지역이거나 오사카, 도쿄, 요코하마 등과 같은 주요 도시는 1:10,000 축척의 지도로 그려졌다.



[그림 7] 기타큐슈시 고쿠리현(1: 10,000)



[그림 8] 장춘 (1:10,000)



[그림 9] 요동반도, 산둥반도, 부산 (1:10,000)



[그림 10] 상해와 대만 일대 (1:10,000)

일본 국외로는 한반도의 부산, 중국의 장춘·대련·산둥반도의 웨이하이·상하이, 그리고 대만이 해당한다. 이 도시들은 한반도와 중국의 주요 해안 도시, 또는 식민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부산은 일본과 가장 근접한 한반도의 항구 도시로 1876년 강화도조약에 의해 부산포로 개항되었으며, 이후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거점이 되었다. 특히 부산 항구는 1906년부터 한국으로부터 쌀을 가져가고 일본의 공산품을 팔기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부두축조공사를 시작으로 1945년까지 1, 2, 3, 4부두

23) 이창위, 2005, 『일본제국 흥망사』, 궁리.

와 중앙부두를 건설했으며, 중국 대륙침략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근대도시화 사업을 추진하였다.²⁴⁾ [그림 7, 8, 9, 10]은 1:10,000 축척으로 제작된 일본과 국외 지역의 색인이다²⁵⁾.

[그림 11]은 《海圖313号 - 釜山港》의 색인 정보²⁶⁾를 표기한 것이다. 가이호즈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원본 지도의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의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지도로 제작한 지역이 현재 부산항이며,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은 현재 부산항 제1, 2, 4, 5, 7부두와 중앙부두이다. 《海圖313号》는 일본의 해군수로부가 1936년에 간행한 1:12,000 축척의 지도로, 부산항의 중심이 되는 부두와 주변의 바다를 지도로 제작한 것이다. 중국 대륙을 침략할 목적에서 물자 수송의 기지가 될 부산항과 부산항 축조로 인한 항구의 변화를 지도에 담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

랴오둥반도[遼東半島]²⁷⁾ 일대는 만주국의 중심 지역이었는데 장춘은 만주국의 수도(新京)²⁸⁾였다. 장춘은 일본 소유의 남만주철도²⁹⁾와 러시아 소유 동청철도(東清鐵道, Chinese Eastern Railway, CER)³⁰⁾가 교차하는 곳으로 빠르게 성장한 지역이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과 ‘만주에 관한 청일협약’을 통해 요동반도 남단(旅順, 大連 및 주변지역) 조차권과 동청철도 남만주지선(장춘~여순), 그리고 부속 탄광을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았다. 이외에도 일본은 ‘청일협약’ 부속협정으로 철도수비병 주둔, 안봉선(安東~奉天, 군용철도) 개축 허가권, 길장철도(吉林~長春) 부설권 등의 이권을 차

24) 부산근대역사관(<http://museum.busan.go.kr/modern/1mdexhib01/>)/나무위키 - 부산항(<https://namu.wiki/w/%EB%B6%80%EC%82%B0%ED%95%AD>).

25) <http://chiri.es.tohoku.ac.jp/~gaihozu/worldmap/index.php?lang=en-US>.

26) <http://chiri.es.tohoku.ac.jp/~gaihozu/ghz-ddt.php?fm=l&ghzno=TH010348>.

27) 랴오닝성(遼寧省) 남부의 반도.

28)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중국 동북(東北) 지방에 세운 국가로 청나라의 폐위된 황제(廢帝:宣統帝) 부의(溥儀)가 일본에 의하여 황제가 되었다.

29) 포츠머스 조약(러일전쟁의 강화조약, 1905년)에 의하여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철도 및 부속지를 양도 받는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1906년에 일본 국책회사인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州鐵道株式會社)를 설립하고 1945년까지 중국 동북지방에 운영되었다.

30) 하얼빈을 중심으로 만저우리(만주리)와 쉰이펀허(수분하), 다롄을 잇는 철도 노선이다. 1911년 중화민국 성립이후 중동철도(中東鐵道)라고 불렸다.

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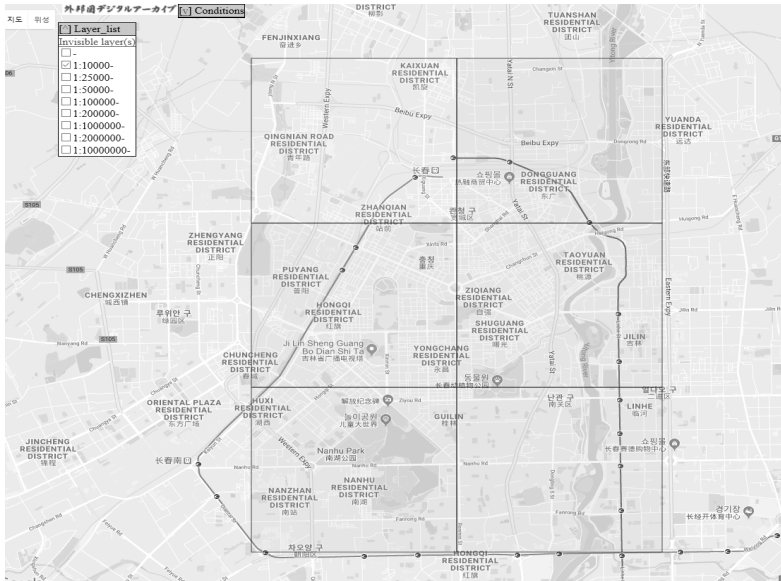


[그림 11] 부산 지역 1:12,000지도(네모 셀 안의 지역이 지도로 제작)

이때 관동성(關東省)을 관동주(關東州)로 개칭한 일본은 1905년 9월, 관동총독부(關東總督府)를 요양에 설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육군 군벌은 대륙 침략에 대한 자신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만주의 수송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³¹⁾. 이에 한반도의 중관 철도와 안봉철도, 만주북부철도가 수송을 위한 간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대륙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데라우치 마사다케³²⁾ 내각(1916~18)은 조선과 만주를 잇는 철도를 통일하고 만철이 조선철도를 위탁 경영하도록 조치(1917. 7. 31)하였다.³³⁾ [그림 12]는 일본이 가이호즈로 제작한 장춘지역을 표시한 지도이다. 《新京近傍》이라는 도엽명이며, 1호부터 6호까지 모두 6장으로 이

31) 정태현, 2015, 『조선철도에 대한 滿鐵 위탁경영과 총독부 直營으로의 환원 과정 및 배경』, 『韓國史學報』 60, 384~388쪽.
 32) 寺內正毅(1852 - 1919). 일본의 군인이며 정치가로 1901년 가쓰라 다로(桂太郎) 제1차 내각에 육군상 역임, 1910년에는 제3대 조선통감 겸임, 한일합방을 주도. 초대 조선총독을 역임하고, 1916년 일본수상이 되어 한국과 중국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수행(한국근현대사사전, 가람기획;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19765&cid=62048&categoryId=62048>).
 33) 정재정, 1999,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출판부, 112쪽.

투어진 1:10,000 축척의 지형도³⁴⁾이다. 일본육지측량부(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에서 1934년에 제작하고 1936년 발행하였다. 당시 국제 정세 하에서 일본에게 중요한 지역이었던 장춘을 1:10,000 축척의 자세한 지도로 제작한 것이다.



[그림 12] 장춘지역 지도(6개의 네모 셀 안의 지역이 지도로 제작된 것임)

[그림 13]은 랴오둥 반도 가운데 일본이 가이호즈로 제작한 여순과 대련 지역이다. 네모로 표시된 지역이 지도로 제작된 곳이며, 여순 지도는 도엽명이《旅順近郊》³⁵⁾로 1918년에 축도하고 1921년에 발행하였다. 대련 지도의 도엽명은《大連》³⁶⁾이며 1921년 축도되어 1922년 제판, 1923년 발행되었다. 두 지도 모두 여순요새사령부(旅順要塞司令部)에서 인허가받고, 관동청육지측량부(關東廳陸地測量部)에서 발행한 1:10,000 축척의 지도이다. 랴오둥 반

34) <http://chiri.es.tohoku.ac.jp/~gaihozu/ghz-dtl.php?fm=&ghzno=OC006767>.

35) <http://chiri.es.tohoku.ac.jp/~gaihozu/ghz-dtl.php?fm=&ghzno=TH002256>.

36) <http://chiri.es.tohoku.ac.jp/~gaihozu/ghz-dtl.php?fm=&ghzno=TH002255>.

도에서 특별히 이 두 지역을 지도로 제작한 이유는 당시 일본에게 지정학적
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13] 라오둥반도 여순과 대련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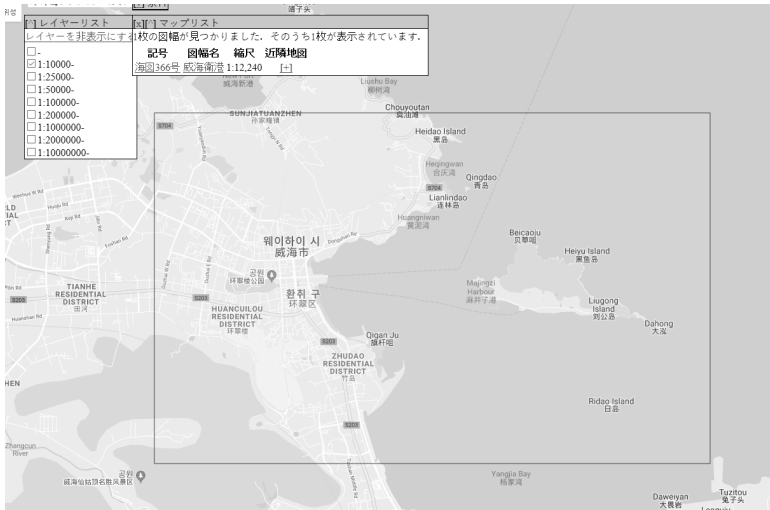
청일전쟁 이후 독일은 1897년 칭다오를 조차지로 차지하여 극동의 근거지로 삼고, 산둥반도 일대를 세력 아래에 두었다. 산둥반도는 발해만에 위치한 군사상의 요지로 일본이 탐내던 지역이었다. 영국의 선전포고로 독일의 상황이 어려운 틈을 이용하여 1914년, 일본은 독일의 조차지였던 산둥지역을 점령하였다. 당시의 국제정세와 일본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에게 이 지역은 중국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림 14]의 셀 안의 지역은 1:12,240 축척의 가이호즈가 제작된 지역이다. 지도의 도엽명은 《海図366号-威海衛港》³⁷⁾이며 일본의 해군수로부에서 1933년에 제작되었다. 산둥반도 가운데에서도 발해만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인 웨이하이 항구를 자세하게 표현한 지도를 만들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1만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는 좁은 지역을 자세하게 표현한 지도로, 위 지역들은 일본의 입장에서 공통으로 군사 및 식민통치 목적 등으로 매우 중

37) <http://chiri.es.tohoku.ac.jp/~gaihozu/ghz-dtl.php?fm=1&ghzno=TH010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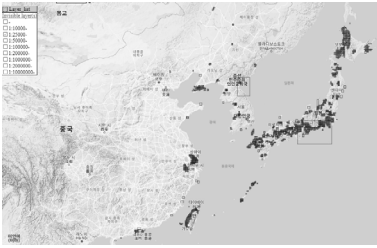
요한 도시들이다. 이것은 가이호즈가 특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작된 지도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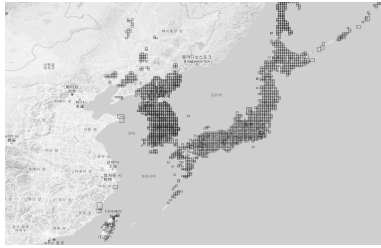
[그림 14] 산둥반도의 《해도 366》지역

2. 1:25,000~ 1:10,000 가이호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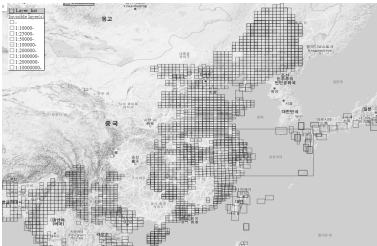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은 각각 1:25,000, 1:50,000, 1:100,000 가이호즈이다. 세 가지 지도의 파란색 셀은 지도로 제작된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1:25,000의 축척으로 표현된 지역은 1:10,000 축척 지도로 나타난 지역과 대부분 중복되고 주변 지역까지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1:25,000의 축척의 지도까지는 일본이 가장 중요시했던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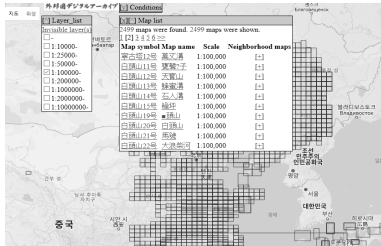
[그림 15] 1:25,000 Gaihōzu 분포도



[그림 16] 1:50,000 Gaihōzu 분포도



[그림 17] 1:100,000 Gaihōzu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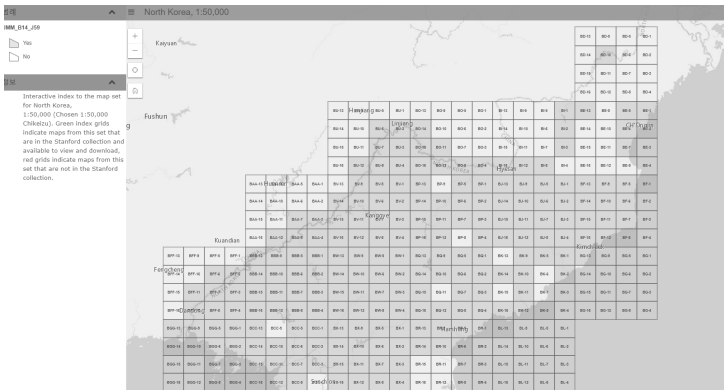


[그림 18] 1:100,000 Gaihōzu의 백두산

1:50,000 지도의 경우 일본 전역과 한반도 전역, 만주국 일대와 기타 동북 삼성지역, 그리고 대만 일부 지역만이 지도로 제작되었다. 그런데 1:100,000 지도의 경우, 한반도 전역과 일본 대부분 지역이 제외된 점이 매우 대조적이다. 이처럼 가이호즈를 제작할 때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축척을 적용한 것은 가이호즈 제작의 특징임과 동시에 지도 제작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일본은 식민지 지역과 전쟁에 필요한 군사지역, 그리고 물자 수송에 중요한 해안 항구지역의 경우 작은 스케일을 적용하여 지역을 자세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반면 중요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큰 축척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가이호즈를 제작할 때 목적에 따른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지도 제작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취사와 선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당시 일본은 식민지를 경영함과 동시에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대외적인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많은 지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도를 제작했다.

IV. 가이호즈에 나타나는 압록강 하구

[그림 19]는 《North Korea Index Map(북한지역 색인지도)》³⁸⁾로, 각 셀에 해당하는 지역에 1:50,000의 축척을 적용하여 지도로 제작하였다. 음영으로 표시된 셀은 스캔을 통해 온라인상에 이미지가 제공되는 지도가 있는 부분이며, 음영이 없는 셀은 지도의 유실 또는 스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일본이 파악하고자 했던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특히 청과의 국경 지역인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 지역의 가이호즈는 당시 한반도 국경 지역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림 19] North Korea Index Map

1. 압록강 하구 조사의 배경과 가이호즈 제작

19세기 말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국가를 형성한 뒤,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 식민지 건설에 나섰다.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수상은 ‘한국에 대한 지배는 어느 국가에도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 목표’라고 단언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³⁹⁾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승

38) <https://stanford.maps.arcgis.com/apps/SimpleViewer/index.html?appid=ab4fca3d9d4145e2a5e2fa25deab88b1>.

39) 조명철, 2004, 「러일전쟁기 일본 육군의 만주전략」, 『군사』 51, 322~323쪽.

리하고도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러시아에 빼앗긴 일본은 러시아의 동진을 막으려는 영국과 1902년, 영일동맹을 맺는 것을 선택하였다.

당시 한반도와 만주는 일본과 러시아 모두에게 전략적 요충지였다. 특히 한반도는 일본이 아시아 대륙으로 침략하기 위한 교두보적 위치에 있었다. 중국과는 백두산을 정점으로 압록-두만강을 경계로 하고, 러시아와는 두만강이 경계였다. 영일동맹 이후 1903년 4월, 러일전쟁 직전에 발생한 용암포 사건⁴⁰⁾은 당시 압록강 변경의 중요성과 열강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여실히 보여줬다.⁴¹⁾

압록강 삼림 채벌권의 개발, 경의선 철도부설권, 용암포 조차권, 의주 및 용암포·안동·대동구 개방은 러시아와 일본뿐만 아니라 열강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⁴²⁾ 이것은 단순한 압록강 하구의 경제적 이권 채득 문제를 넘어 만주를 통해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한다는 의미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러일전쟁(1904.2~1905.9)이 발발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게 압록강 하구의 용암포, 신의주, 안동(安東, 현재의 중국 단둥), 대동구(大同溝) 등은 만주 진출을 위한 거점이 되었다.

『黃草坪關係書, 1906~1909』, 『國境附近島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 『明治三十七八年戰役滿洲軍政史』 등의 자료에는 1906년 일본군 안동현군정서(安東縣軍政署)가 압록강 하구를 조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러일전쟁 이후 압록강 국경 문제는 청과의 외교 문제로 주목받았는데, 무기력한 대한제국 정부의 행적 능력을 기회 삼아 평안도의 주민들은 빈번하게 공토를 점유하거나 매각하곤 했다.

40) 1903년 압록강 주변에서 벌채사업을 추진하던 러시아가 용암포 및 압록강 하구 일대를 무단 점령하고, 대한제국에 벌채권 조차를 요구하였다. 이에 영일동맹을 체결한 일본과 영국이 강력 반대하여 결국 러시아는 벌채권을 받지 못했다. 이는 훗날 러일전쟁의 발단이 되었다.

41) 자세한 내용은 김원수, 2010, 『압록강 위기와 러일전쟁』, 『서양사학연구』 23, 115~141쪽; 현광호, 2007, 『주한일본공사의 용암포사건인식과 대한교섭』, 『백산학보』 78, 195~221쪽을 참조.

42) 김원수, 2010, 위의글, 115~116쪽.

러일전쟁 이후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게 된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압록강 하구를 조사했다. 용암포 파출소장 육군 보병 대위 나리타 세이(成田正)⁴³⁾는 1906년 5월부터 8월까지 압록강 하구를 조사한 이후 청국 관동총독부로 옮겨갔다. 조사의 범위와 내용은 압록강 수로, 압록강 하구 도서와 사주들의 유무인도(有無人島) 여부, 지역의 인정, 풍속, 구관(舊慣) 등 광범위했다. 이는 당시 조사가 단순한 측량이 아니라 장래 한국 지배를 염두에 둔 정보수집이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⁴⁴⁾

『황초평관계서』에는 나리타 세이 소장의 조사 내용이 군사기밀로 처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⁵⁾ 따라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일본이 제작한 가이호즈에는 조사의 흔적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특히 하구지역은 자연지형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 당시 압록강 하구의 자연경관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일본이 조사한 인문·사회적 내용을 밝히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2. 가이호즈에 나타나는 조-청 국경인식

일제강점기 조-청간 국경문제의 쟁점은 백두산을 위시한 압록강의 국경 획정과 두만강의 간도문제였다. 국제사회에서 보통 하천을 국경으로 하는 경우에는 탈베그(Talweg, 最深可航航路)⁴⁶⁾의 규칙을 따른다. 탈베그의 규칙은 기본적으로 선 개념에 의한 국경 획정이다. 양국 사이의 특별한 합의나 관

43) 龍川港 日本軍政署出張所長 陸軍歩兵大尉 成田正은 1906년 9월 28일에 淸國 關東總督府로 물러났고 平壤理事廳警部 林和一은 事務를 繼續하기 위해서 1906년 9월 23일에 日本軍政署에 來到하였다는 報告 제23호(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龍川港案奎 17874).

44) 오병한, 2017, 「1906년 일본군 안동현군정서의 압록강 하구 조사의 성격과 의의」, 『한국근현대사연구』 80, 69~70쪽.

45) 「鴨綠江 下流의 國境問題」라는 문서로 작성되어 高山公通 군정에게 보고되었으으며, 이 문서에는 “明治 39年(1906년) 前 安東軍政官 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 龍巖浦 歷史, 2. 淸韓 國境調査書, 3. 淸韓境界關係交涉書類, 4. 鴨綠江 下流에서의 國境問題’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오병한, 2017, 위의글, 89쪽).

46) 탈베그의 규칙은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국경하천 등의 경계를 정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 하천의 중앙선(中央線; middle channel)을 기준으로 한다. 항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항 수로의 중앙선을, 항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천의 양안으로부터 중앙선을 국경으로 한다.

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를 적용한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빈번한 홍수와 심한 조수의 차이로 압록강의 강심이 청나라의 연안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깨닫고 1920년대까지 탈베그의 규칙에 의한 국경 획정을 거부했다. 미국 등 역사적 연혁이 없는 국경 하천의 경우에 탈베그의 규칙이 적용되지만, 압록강 하구의 섬들은 특수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역사적 연혁’에 근거하여 국경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1964년 10월 북한과 중국의 조-중변계의정서를 체결 할 때까지도 압록강에는 명확한 국경선이 없었다.⁴⁷⁾ 당시 양국은 국경 하천의 수면 전체를 국경으로 하는 면(面) 개념에 의한 국경 획정을 하였기 때문에 선(線) 개념의 탈베그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양국은 변계조약 체결 이전에도 ‘역사적 연혁’에 따라 어느 일방의 국민이 정주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도서와 사주는 해당국의 영토로 하고 다시 변경하지 않으며, 그 외의 도서와 사주는 서로에게 가까운 측에 귀속하고, 양안의 정중앙에 위치한 것은 쌍방의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정하였다.⁴⁸⁾ 이와 같은 압록강 국경 획정은 일제시기 일본의 압록강 국경 획정에 대한 태도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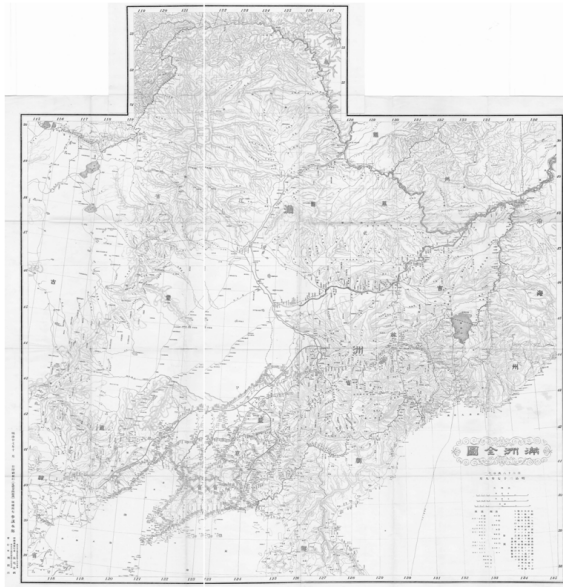
그렇지만 문서로서 공간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림 20]은 1894년에 제작된 《滿洲全圖》로, 조선의 북부지역과 함께 만주일대가 표현되어 있다. 이는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발발한 직후 그해 9월에 참모본부가 만들고 10월에 인쇄한 168만분의 1 지도이다. 따라서 지도의 정보는 청일전쟁 이전에 수집된 것이다.

[그림 21]은 [그림 20]의 조선과 청나라의 변경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지도의 내용은 군현 정도 수준의 정보와 도로가 표시되었고 산과 하천을 표현하였다. 특히 조선-청의 경계가 되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자세하다. 지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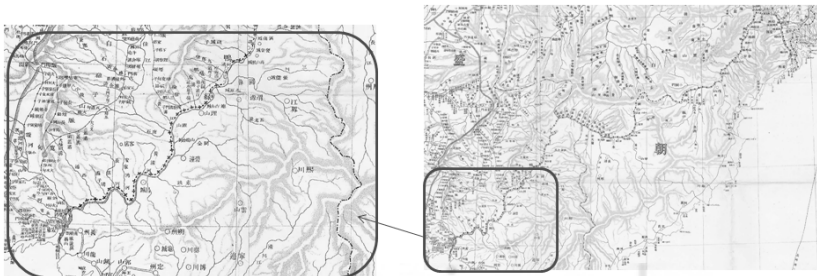
47) 오병한, 2018, 「1910~1920년대 일본가 중국의 압록강 국경문제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84, 151~152쪽.

48) 노영돈, 2008, 「북한-중국의 국경획정 상황의 고찰」, 『백산학보』 82, 246~2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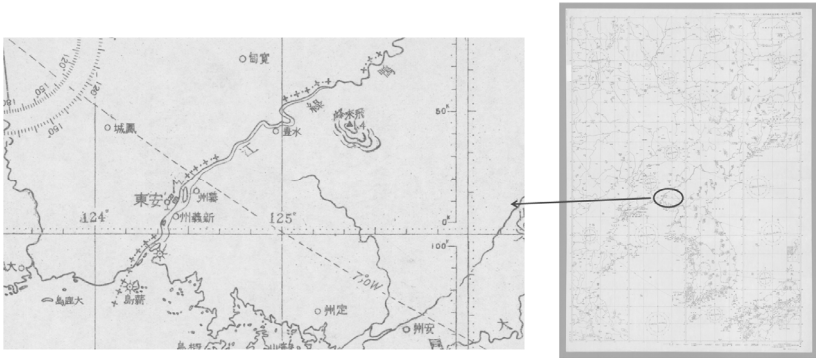
서 국경의 표시는 ‘+·+·+·+·+’인데, 확대된 지도를 통해 보면, 양국의 경계 표시는 압록강 가운데가 아니라 압록강의 북쪽, 즉 청나라 측에 있다. [그림 22]는 1944년에 참모본부에서 제작한 《航法用經緯度圖》로 《만주전도》보다 50년 후에 제작된 지도이다. 이 지도 역시 국경선을 ‘+·+·+·+·+’로 표기하였으며 압록강 북쪽의 내륙에 국경 표기를 하였다.



[그림 20] 1894년 만주전도, 필자 개인소장



[그림 21] [그림 20]의 조-청 변경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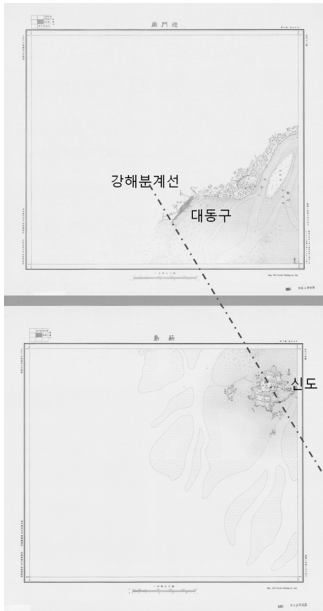
[그림 22] 1944년 항법용경위도도, 스텐포드대학 소장

3. 가이호즈에 나타나는 압록강 하구 강해분계선지역

《薪島》와 《迎門巖》 ‘1:50,000’ 가이호즈에는 압록강 하구의 강해분계 지역이 나타나 있다. 신도(북한측 비단섬, 중국측 獐子島)와 영문암은 압록강 최하구의 지역으로 중국과의 도서(島嶼) 귀속문제가 있었던 지역이다(그림 23). 두 지도는 지형의 상, 하 지역으로 대동구와 신도를 이은 직선이 현재의 강해분계선이 된다. 1964년 조·중변계의정서를 체결할 때, 확정한 압록강과 서해의 강해분계선은 압록강과 서해와의 경계를 정한 것으로 양국의 영해기선이 되었다. 변계의정서에서는 구체적인 확정과 경계가 표시되었는데, 북한의 소다사도(小多獅島, 1호 강해분계표지)부터 직선으로 북한의 신도(薪島, 2호 강해분계표지), 중국의 대동구(大東溝, 3호 강해분계표지)의 남쪽 돌출부 최남단까지(길이 22,249.2m)이다.⁴⁹⁾

《신도》는 1917년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도로 지명과 압록강 하구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용천군(龍川郡) 신도면(薪島面)에 소속된 섬 가운데 신도는 2,000,000㎡에 이르는 가장 큰 섬이다. 그 외에 마안도(馬鞍島), 초개도(草介島), 영도(永島), 애도(艾島), 장도(長島), 달도(達島) 등의 작은 섬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작은 섬에서는 발농사를 지었지만 신도에서는 발농사와

49) 노영돈, 2008, 앞의글, 251~252쪽.



[그림 23] 영문암(상)과 신도(하), 스텐포드대학 소장

논농사의 경작이 모두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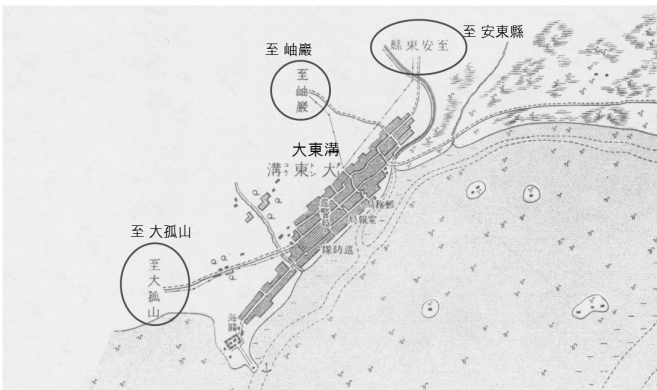
신도는 어장으로서 입지조건이 좋고 압록강의 중상류에서 내려와 쌓인 토사로 갯벌을 이루어 양질의 갈대가 생산되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곳이기 하다(그림 25). 갈대밭은 신도에서 서북쪽으로 대동구 앞쪽까지, 그리고 압록강의 강구를 거슬러 올라가 영문암, 신척평(信倮坪), 황초평(黃草坪) 등지에도 넓게 펼쳐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도는 역사적으로 중요시되었으며, 청나라 사람들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비단섬이라고 칭하며 간척지를 만들고 갈대 경작으로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24] 신도 지도

신도에서부터 서북쪽으로 이어지는 갈대밭은 《영문암》 지도에 잘 나타나 있다. 영문암은 압록강의 사이에 생긴 갯벌에 형성된 갈대밭인데 이 일대의 압록강의 일부는 중국 측의 조씨구(趙氏溝)로 흘러 들어간다. 중국 측의 강해경계인 [그림 25]의 대동구는 해관(海關)이 설치되어 있고 순경국, 순방대, 전보국 등이 갖추진 도시이다. 대동구에서 유암(岫巖), 대고산(大孤山), 안동(安東)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놓인 점으로 미뤄 이곳이 사람과 물류의 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곳임을 보여준다.

1907년 3월, 청은 『中美續議通商行船條約』과 『中日會議東三省事宜條約』을 체결하고 안동과 대동구를 개방하였다. 안동의 서쪽에 연결한 대동구는 신의주를 건너 만나는 만주의 첫 하구 도시로 러일전쟁 이후 안동과 함께 일본에 의해 일찍이 해관이 설치되고 개방된 것이다. 지도에는 대동구의 교량적인 지리적 위치와 당시 대동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림 25] 대동구 지역

4. 가이호즈에 나타나는 용암포

[그림 26]은 1917년에 육지측량부가 제작하고 1938년에 다시 수정한 《龍巖浦》 지도이다. 용암포는 평안북도 용천군에 소속되어 있다. 영문암에서



[그림 26] 용암포, 스탠포드대학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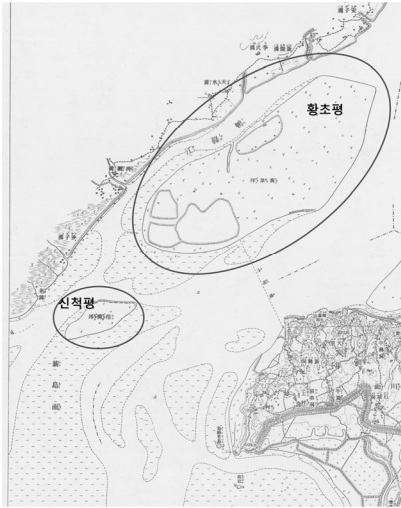
압록강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간 지역에 갈대밭인 신척평(信倮坪, 용천군 신도면)과 황초평(黃草坪)이 형성되어 있다. 두 곳은 갈대를 둘러싼 이권의 문제로 예로부터 조선과 청과 분쟁지역이다. 1901년 한국 정부는 황초평이 우리의 도서임을 주장하였고 1904년에는 황초평 사감위원 김상학을 파견하여 청 정부와 교섭 도록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을사늑약 이후 무능력해진 한국 정부의 통치를 기회로 공토를 침탈하려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통감부는 그 일대 섬들의 소속 문제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⁵⁰⁾ 용암포는 러일전쟁 직전, 만한 접경지역으로써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화하고자 했던 곳이다. 이 지역은 여순 방어와 목재사업을 위한 전초기지였으며 의주와 함께 만주로 진출하기 위한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가 용암포 조차를 기도하였다. 신척평은 신택평(申澤坪)이라는 명칭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지도상에는 신척평으로 표기되어 있다. 황초평은 현재의 황금평이다. 1908년 2월 통감부는 황초평의 갈대를 둘러싼 청과의 분쟁을 청나라 사람들로부터 그곳의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 후 1964년 조-중변계의정서 체결 전까지 이 일대의 영토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⁵¹⁾

그런데 《용암포(龍巖浦)》 지도에는 당시 신척평과 황초평을 비롯한 용암포의 상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일제 강점기 압록강 국경문제에 대한 최근 논문에 따르면 1920년대까지 압록강의 국경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한다.⁵²⁾ 하지만 이 지도를 통해서 신척평과 황초평 모두 용암포 신도면(薪島面)

50) 오병한, 2017, 앞의글, 78~81쪽.

51) 오병한, 2018, 앞의글, 152~153쪽.



[그림 27] 용암포 지도 중 황초평과 신척평

에 소속된 도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일제시기 압록강 하구 도서의 소속과 국경획정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다만 용암포 일대를 포함한 압록강에는 중국과의 국경 표기가 없는데, 이는 선이 아닌 면으로 압록강 전체를 국경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그림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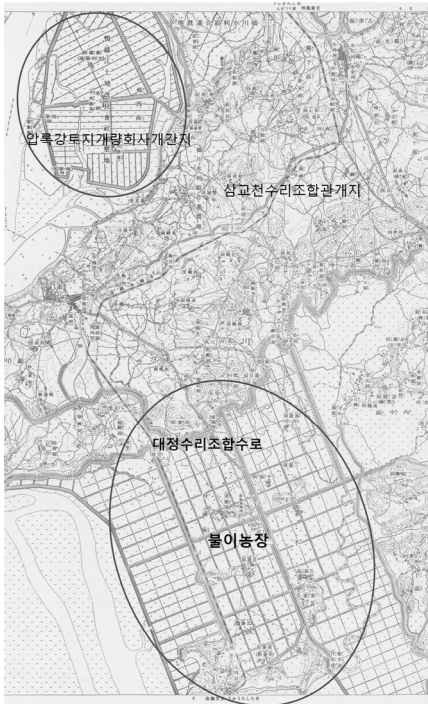
또한 이 지역은 압록강의 유량 변화에 따라 지형이 바뀔 정도로 섬 사이에 갯벌이 많다는 것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 강점기에 용암포 일대에서 토지개간사업과 관계지 사업이 실시되었다. 양서면 일대에는 갯벌을 막아 경지로 만든 ‘압록강토지개량회 사개간지(鴨綠江土地改良會社開墾地)’가 있고 이외에도 북중면, 양하면 일대의 ‘삼교천수리조합관개지(三橋川水利組合灌溉地)’, 부유면(府維面)의 대정수리조합(大正水利組合)에서 관리하던 불이서선농장(不二西線農場)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 28).

수리조합은 1906년 수리조합조례 제정 이후 일본 지주제의 성립 및 발전 과정에 나타난 일본 농업 정책 가운데 하나였는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에도 적용되었다. 치수(治水)는 국가가 하지만 실질적인 물의 이용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층에게 있었다. 지주층은 이 권한을 이용하여 토지 경작자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었다.⁵³⁾

52) 오병한, 2018, 앞의글, 153쪽.

53) 박명규, 1989, 「일제하 수리조합 설치과정과 그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연구-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20, 174~175쪽.



[그림 28] 용암포 지도 중 개간지

초기의 수리조합 사업은 1910년대 말까지 지주들의 인식 부족과 일제의 재정 부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전국적으로 1917년까지 14개소 정도였다.⁵⁴⁾ 용암포에 설치된 대정수리조합은 1914년에 설립인가를 받고 1915년에 기공하여 1918년 봄부터 급수를 개시했는데 이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용암포 토지의 사업성과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였던 용암포 토지사업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 또한 지도에는 수리조합과 토지개발화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당시 용암포 일대의 경관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5. 가이호즈에 나타나는 신의주와 안동

일제는 러일전쟁 당시 승전지에 군정서(軍政署)를 설치하였는데, 1904년 5월 8일 안동현군정서(安東縣軍政署)가 최초다. 일제가 안동에 주목한 것은 신의주 대안(對岸), 압록강 하구라는 위치적 특징과 공간적 중요성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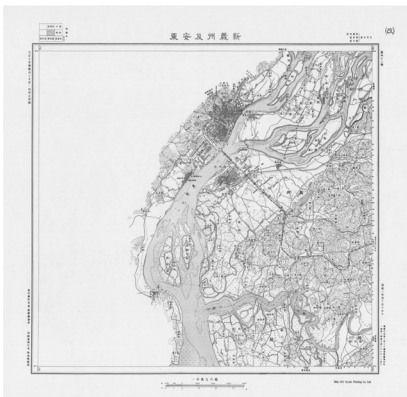
1900년대부터 안동은 물산 집산지로서 상업이 발달하였으며,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만주 침략을 위한 제 1 병참의 주요 거점도시이기도 하였다⁵⁵⁾. 현

54) 박수현, 2001, 『일제하 수리조합사업과 농촌사회의 변동 1920년~34년 산미증식계획기간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15, 83~84쪽.

55) 오병한, 2017, 앞의글, 73~74쪽.



[그림 29] 1927년 8월 14일 동아일보사. 『전조선 수리조합 실태 답사기』



[그림 30] 신의주급안동, 스텐포드대학 소장

재까지도 압록강 하구 최대의 무역기지인 안동(현재의 단동)은 서로 마주하고 있는 신의주를 통해 북한과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1911년에 완공된 압록강 철교는 당시 한국과 청의 경제적, 인적 교류의 통로였을 뿐만 아니라 대륙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현재 중국 측의 완공을 마친 신압록강 철교는 시간을 초월한 이 지역의 특수한 교량적 위치를 반증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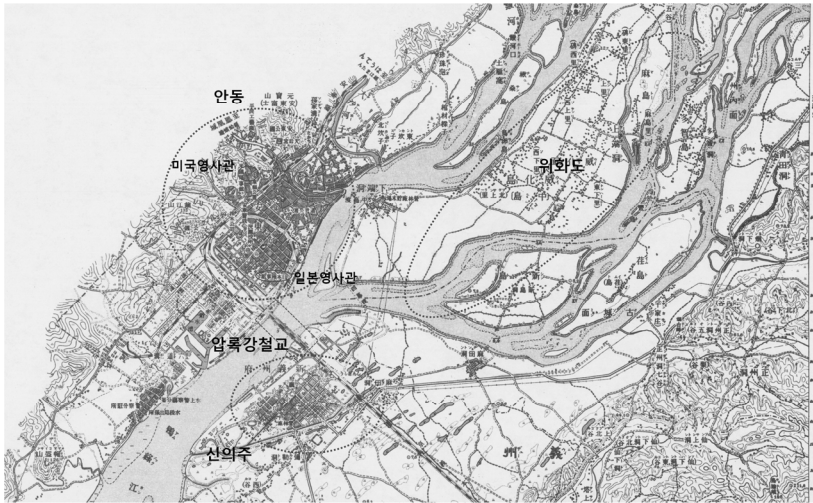
[그림 30]은 1918년에 제작된 《新義州及安東》 1:50,000 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압록강을 사이로 신의주와 안동지역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그런데 지도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는 ‘평안북도 신의주부 의주군 용천군’으로 표기되어 있다. 안동은 평안북도에 소속된 지역이 아니며, 1904년부터 1906년

까지 일본군의 안동현의정서 관할에 있다가 1907년 봉천성(奉天省)에, 1914년에는 동변도(東邊道), 1929년에는 요녕성에 소속된 곳이다.⁵⁶⁾ 당시 신의주와 안동은 모두 일제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도상에 국경선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림 31]는 지도의 상단 부분으로 신의주와 안동을 연결하는 압록강 철

56) Baidu百科:安東(<https://baike.baidu.com/item/%E5%AE%89%E4%B8%9C/10468376>).

교가 놓여 있는데 안동은 신의주보다 크고 발달된 도시의 모습이다. 경의선⁵⁷⁾은 1902년 기공되었는데,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서울~신의주’ 구간 군용 철도를 부설하기 위하여 임시군용철도감부를 설치하고 이 구간의 공사를 서둘렀다. 1904년 3월, ‘용산~개성’ 구간의 노반공사가 착수된 이래 1905년에는 ‘평양~신의주’ 구간이 완공되면서 직통운전이 시작되었고 1906년 청천강·대동강 철교가 준공되면서 전구간이 개통되었다. 1908년에는 신의주에서 부산을 잇는 한국 최초의 급행열차인 융희호(隆熙號)가 운행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11년 압록강 철교가 완공되면서 중국의 만주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국제 철도 노선의 일부가 되었다. 압록강 철교를 지나는 철도가 안봉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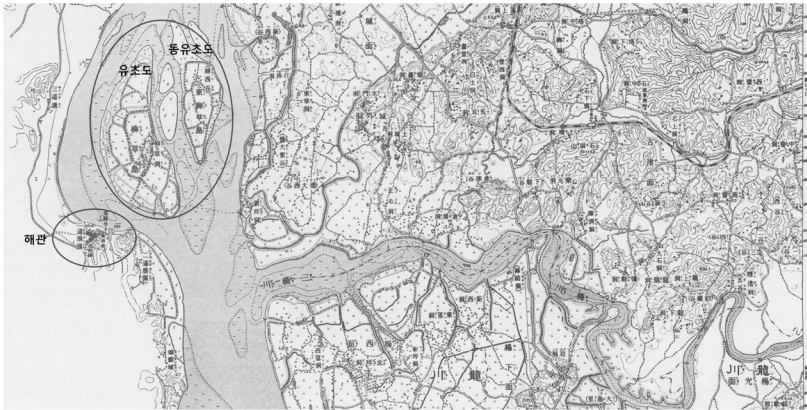


[그림 31] 《신의주급안동》지도의 상단

57) 경의선은 1896년 프랑스 피브릴(Fives Lille)사가 처음으로 부설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자금 조달 문제로 부설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1899년 대한철도회사가 다시 특허를 얻었다가 또 다시 실패하게 되었다. 이후 1900년, 정부 기관인 내장원(內藏院)에 서부 철도국을 두고 ‘서울 ~ 개성’ 구간 선로 측량을 시작하였다. 1920년대에 서울역을 기점으로 하여, 신촌을 지나 가좌동에서 합류하는 신선이 개통되었다. 1943년에는 평양-신의주 구간이 복선화되었다. 광복 후 남북 분단이 되었지만 열차는 계속 운행해 오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문산-개성 운행이 중단되면서 남북간 철도는 끊기게 된다.(위키피디아:경의선(<https://ko.wikipedia.org/wiki/경의선>)).

지도에 안동의 일본영사관과 미국영사관이 표시되어 있다. 당시 미국이 안동 지역에 얼마큼 관심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⁵⁸⁾ 또한 위화도 주변으로 제방이 설치되어 있고 위화도를 비롯한 다지도(多智島)·마도(麻島)·임도(荏島)·신도(新島) 등지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는 지도의 하단 부분으로, 유초도와 가장 가까운 삼도랑두(三道浪頭)에 해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유초도와 동유초도 역시 섬의 소속 문제가 있어왔는데, 지도상에는 신의주 유초동에 소속되어 있다.



[그림 32] 《신의주급안동》지도의 하단

V. 맺음말

일본은 1870년경부터 다른 나라에 첩보를 보내어 비밀지도를 제작했으며,

58) 미국은 안동의 발전을 위하여 안동의 주요 산물인 백잠종(白蠶種)을 일본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수출하는 공장을 세우기로 하는데, 미국영사의 허가로 자본금 20만원이 투자되었다. 또한 미국영사의 후원으로 중국측이 제안한 전등경영을 단행함으로써 일본의 만철안 동전등경영소는 큰 타격을 입었다는 내용(1921년 4월 11일 동아일보의 기사).

이 지도는 외방도·가이호즈(Gaihōzu)·Japanese imperial maps·일본제국기 군사기밀지도 등으로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명명되고 있다. 가이호즈에는 세계를 바라보는 당시 일본의 관점과 세계를 향한 일본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면을 밝히고자 했다.

2007년, 일본 오사카 대학의 고바야시 교수를 중심으로 ‘Gaihōzu Map Digital Archive’가 만들어졌다. 도호쿠대학 도서관은 서버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 가이호즈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다. 상당수의 가이호즈를 소장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스텐포드 대학에서만 지도를 스캔하여 DB화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 대학에서는 지도의 목록화 작업을 마쳤으며, 지도의 스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일본 육군참모본부나 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가이호즈를 바탕으로 제작한 《근세한국 오만분일지형도(1998년 경인문화사 편찬)》를 고바야시 교수는 가이호즈라고 발표한 바 있다.

가이호즈는 지역마다 다른 축척을 적용하여 제작되었는데, 군사 및 식민 통치 목적 등의 목적으로 일본에게 중요한 도시는 1:10,000 축척을 적용하여 매우 자세하게 표현하였다. 이것은 가이호즈가 특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작된 지도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청과의 국경 지역인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 지역은 1:50,000 축척의 가이호즈로 제작되기도 했는데, 이 지도들은 당시 국경 지역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당시 일본에게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한다. 특히 압록강 하구지역인 의주·용암포·안동·대동구 등지는 러시아와 일본뿐만 아니라 열강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지역이다.

압록강 하구 지역의 1:50,000 축척의 가이호즈는 당시 이 지역의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자료이다. 공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로 구성된 문서는 한계가 있지만, 공간을 이미지로 형상화한 지도는 더욱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가이호즈를 통하여 신척평과 황초평 등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일제강점기 압록강 하구 도서의 소속과 국경 획정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당시 압록강에는 중국과의 국경 표기가 없는데 이는 일본이 선이 아닌 역사적 연혁을 근거로 하여 압록강 전체를 면의 개념으로써, 국경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용암포 지역의 수리조합과 토지 개량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농지, 안동의 일본영사관과 미국영사관, 압록강 철교와 철도 등은 당시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에게 매력적이었던 압록강 하구지역의 경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방대한 공간을 그린 가이호즈에는 당시의 경관이 잘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자료이다. 특히 분단의 상황으로 북한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우리에게 가이호즈가 보여주는 북한지역은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가이호즈의 수는 적고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으며, 정확한 현황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많은 수의 가이호즈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리와 연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우리나라를 그린 가이호즈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선하여 이 지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DB를 소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1. 도서

- 이창위, 2005, 『일본제국 흥망사』, 궁리
정재정, 1999,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출판부

2. 논문

- 서정익, 2004, 「대공황 전후(1925~1933년) 동북아시아의 정세변동과 일본의 중국침략」, 『아시아연구』 7(1)
전경선, 2013, 「중일전쟁 발발 전후 滿洲國의 선전전」, 『中國近現代史研究』 57
김선민, 2015, 「훈춘, 청과 조선의 변경」, 『만주연구』 19
김원수, 2010, 「압록강 위기와 러일전쟁」, 『서양사학연구』 23
김태국, 2005, 「‘만주국’에서 일제의 식민지배 논리」, 『한국근현대사연구』 35
노영돈, 2008, 「북한-중국의 국경획정 상황의 고찰」, 『백산학보』 82
남영우, 1992, 「日帝 參謀本部 間諜隊에 의한 兵要朝鮮地誌 및 韓國近代地圖의 作成過程」,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4(4)
문상명, 2017, 「Gaihōzu 지도에 나타나는 독도」, 『서지학연구』 72
박명규, 1989, 「일제하 수리조합 설치과정과 그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연구-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20
박선영, 2018, 「한국 근현대지형도의 소장현황과 활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수현, 2001, 「일제하 수리조합사업과 농촌사회의 변동 1920년~34년 산미증식계획 기간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15
박우현, 2017,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설철도 매수 추진과 특징」, 『역사문제연구』 38
손춘일, 2001, 「滿洲事變 前後 在滿朝鮮人 問題와 그들의 困境」, 『정신문화연구』 24(2)
양윤정·양보경, 2009, 「19세기 후반 일본 참모본부 장교들이 제작한 비밀지도: 미국 국회도서관 소장 한국 Vault본 지도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1(3)
오병한, 2017, 「1906년 일본군 안동현군정서의 압록강 하구 조사의 성격과 의의」, 『한국근현대사연구』 80
오병한, 2018, 「1910~1920년대 일본가 중국의 압록강 국경문제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84
정태현, 2015, 「조선철도에 대한 滿鐵 위탁경영과 총독부 直營으로의 환원 과정 및 배경」, 『韓國史學報』 60

조명철, 2004, 「러일전쟁기 일본 육군의 만주전략」, 『군사』 51

현광호, 2007, 「주한일본공사의 용암포사건인식과 대한교섭」, 『백산학보』 78

Ehrenberg, Ralph E. 1981, "Administration of Cartographic Materials in the Library of Congress and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States." *Archivaria* 13

Harris, Chauncy D., 1997, "Geographers in the U.S. Government in Washington, D.C., during World War II." *Professional Geographers* 49

《Japanese Imperial Maps as Sources for East Asian History: A Symposium on the History and Future of The Gaihōzu》, October 8, 2011, Stanford University, Symposium.

Kären Wigen, 2012, Introduction to "Japanese Imperial Maps as Sources for East Asian History: The Past and Future of the Gaihōzu," *Cross - 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E - Journal* (No. 2, March 2012) ▪ <http://cross-currents.berkeley.edu/e-journal/issue-2>

Kobayashi, Shigeru. 2012, "Japanese Mapping of Asia-Pacific Areas, 1873 - 1945: An Overview," *Cross - 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E - Journal* (No. 2, March 2012) ▪ <http://cross-currents.berkeley.edu/e-journal/issue-2>

3. 웹사이트

- University of Washington. <http://guides.lib.uw.edu/friendly.php?s=research/japanstudies>
- 岐阜縣図書館. http://www.library.pref.gifu.lg.jp/map/worlddis/mokuroku/out_japan/out_japan.htm
- kobayashi. http://www.arc.ritsumei.ac.jp/GISDAY/2018/pdf/2_8_JE_kobayashi.pdf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지도자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2&setId=-1&prevPage=0&prevLimit=&itemId=jam&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
- Ritsumeikan University. <http://www.ritsumei.ac.jp/>
- University of Stanford Japanese Imperial Maps. <https://stanford.maps.arcgis.com/apps/PublicGallery/index.html?appid=1ed3022fc7884690a2f137bce9dfe4fe>

투고일 : 2019년 03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4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4월 22일

■ Abstract ■

Japan's National Boundary Recognition of Joseon-Qing Dynasties on the Amnok-River Estuary *Gaibōz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oon, Sangmyeoung (Sungshin University)

Since 1870, Japan has sent intelligence to other countries to produce secret maps, which are called *Gaibōzu*. In *Gaibōzu*, the point of view of Japan at the time of looking at the world and the purpose of Japan toward the world was clear. This study sought to clarify this aspect.

Gaihōzu was created using different scales for different regions, suggesting that *Gaihōzu* is a map made for a specific purpose. In particular, the estuaries of Amnok-River, Yongam-po, Andong, Daedonggu, which were estuaries of the Amnok-River region, were also regions where the complex interests of the powers, including Russia and Japan, intertwined. *Gaibōzu* scale of 1:50,000 in this region made it an important historical document. According to the map, we can confirm that the river border was understood as the concept of cotton. Also, the Yongam-po area, the Japanese Consulate in Andong, the US Consulate, the Amnok-River Railroad Bridge, and the railroad, which were made up of local repairing and land improvement projects, show the scenery of the Amnok-River estuary. This estuary was attractive to Japan and other countries.

Gaibōzu, which depicts a vast space, illustrates the scenes of the time making it a valuable historical document. Especially for North Korea where *Gaibōzu* shows us that we cannot grasp the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on in the situation of division. The various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that hold *Gaibōzu* expand the scope of *Gaibōzu*. Although *Gaibōzu* is insufficient, *Gaibōzu* which depicts our country spread widel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t is

essential to know the status of this map and to collect the database.

Key words : *Gaibōzu*, Amnok-River Estuary, Japan's a national boundary Recognition of Joseon
Dynasty-Qing Dynasty, Sinuiju, Andong